



섬·어촌으로 찾아가는 ‘어복버스’, 의료부터 식품까지 지원 넓힌다

- 어업인 대상 복지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중우)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목)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수협재단, 수협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BNK부산은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양연합회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무인점포)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여,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진우 (051-773-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서기관	김기훈 (051-773-5461)

